

“우리 나라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2.5명의 아기가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하루에 4,000건의 낙태행위가 일어나고, 20초당 한 명의 아기가 죽어간다. 기혼여성 중 59.3% 낙태를 경험했고, 18세 이상 성인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낙태를 한 부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낙태행위로 인하여 부녀를 상해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왔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급피임약을 도입하여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명 모닝애프터필(Morning After Pill)이라 불리는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여 수정란에 자궁착상을 막는 약으로 응급피임에 95%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약은 콘돔이 찢어지거나 사전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성교 후 1알을 바로 복용 한 후 12시간 후에 다시 1알을 복용하면 95% 생리혈이 1주일 이내 나온다. 다만 성교 후 72시간이 지나면 그 피임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수정란이 착상된 후에는 효과가 없다. 부작용은 오심, 구토 등이며 필자가 기형아 전문이지만 태아기형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제1위의 낙태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응급피임약의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년에 150만 건의 낙태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면서도 응급피임약을 도입하면 생명경시 풍조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약을 선뜻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성문란은 로마시대에도 문란했고 성문란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교육, 순결교육, 성교육을 통해서 성문란을 막을 수 있고 응급피임약을 도입한 선진국은 전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노레보(정)와 같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 10월 이태리는 자국의 안젤리니(Angellini)사가, 개발사인 프랑스의 파르마(IIRA Pharma) 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처방의약품으로 발매한 노레보(정)에 대해 허가를 내렸다. 그러자 교황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호르몬응급피임제는 ‘화학적 낙태’ 행위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수술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법률 19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노레보의 판매에 대해 양심에 따라 반대해야 한다”고 이태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교황청의 이런 반대에 대해 이태리 보건성 장관인 움베르트 베로네씨 박사는 “바티칸의 윤리적인 관심표명은 역사적으로 모든 형태의 피임행위에 대해 반대해 온 바티칸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노레보가 낙태행위는 아니며, 이 약이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내장치, 루우프처럼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약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률 194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즉각 반발했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은 우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하에 성교육을 시키면서 그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추후 보완하여 점차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사전피임약 사용율이 30%인데 우리 나라는 불과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피임약을 오히려 보급 확대시켜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응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사전피임약과 같이 일반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

전세계 선진국 39개국 중 15개국은 일반의약품으로 쓰고 있으며 OECD 국가는 거의 사용하고 있거나 심사중이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 미국 산부인과 학회 의사 4만 명은 이제 일반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미국정부에 요청하여 곧 일반의약품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노레보(정)의 개발국인 프랑스의회는 2000년 12월 1일, 고등학교에서의 응급피임약 배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하여 통과시켰다. 그 법안에 의하면, 학교 간호사 혹은 약국의 약사가 여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또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응급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사용 2000년 12월 1일, 6일자)

즉 학교 간호사는 신뢰감 속에서 여학생이 준비 없는 성관계를 가졌는지, 강제적 성관계를 강요받았는지, 상용피임약 복용을 잊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하고, 응급피임약

복용법, 부작용, 상승적 복용에 대한 경고 및 일상적 피임법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시간에 피임약에 대한 언급도 꺼리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냥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고 응급피임약을 계기로 제대로 된 성교육에 의료인도 동참해야 한다. 미국 FDA는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 아닌 사전피임약의 연속이라고 공식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냈기 때문에 소모적인 낙태생명 존중사상은 너 이상 국력낭비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도 이미 불법적이지만 대다수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3일~7일까지 5일간 전화설문을 통해 서울시내 약국 137개 약국을 샘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3%인 86개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조제해 준다는 답변을 얻었다.

일반피임약으로 판매허가 되어 있는 약제를 오히려 불법적으로 임의

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약제를 잘못 복용했을 때 복통, 오심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전피임약의 4배 용량을 주던 이 방법은 캐나다 의사 유펜트 박사의 임상경험상 55%의 피임효과를 거두나, 응급피임약은 약용량이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95% 이상 효과가 있으니 제대로 된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정책조사기관인 보트코리아([www.votekorca.net](http://www.votekorca.net))와 함께 인터넷 이메일 조사를 통해 대학교수 1,442명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71%인 1,007명이 응급피임약 판매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임신방지 및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가 64.5%, '낙태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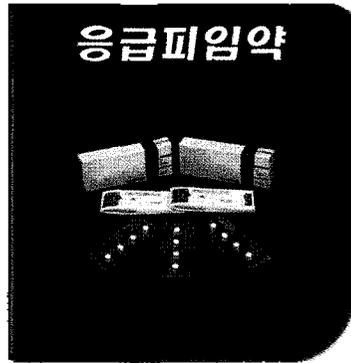
종교별로는 천주교신자의 59.9%, 기독교신자의 63.7%가 판매에 찬성했고, 불교신자의 76.3%가 찬성하고 있다.

판매의 형태로는 65.9%가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23.8%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문결과를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응급피임약의 허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모든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해에만 150만 건의 낙태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기혼 여성의 39%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세계 2위의 낙태국가인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응급피임약의 분제는 단순한 약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낙태에 의한 불임증, 우리 나라가 시험관 아기 시술 세계 최고는 낙태



에 의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약시장 등 의료계의 이해 집단간의 갈등, 이기주의가 그 동안 응급피임약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응급피임약을 논하기에 앞서 올바르게 현실적인 성교육과 피임교육, 홍보를 통해 낙태를 줄여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수술대 위에서 어린 생명을 죽이는

불행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방법으로 응급피임약을 선택하는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은 우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하에 성교육을 시키면서 그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추후 보완하여 점차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사전피임약 사용율이 30%인데 우리 나라는 불과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피임약을 오히려 보급 확대시켜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응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사전피임약과 같이 일반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



## 12월 1일은 제14차 세계에이즈의 날



팝 싱어인 리키 마틴과 어린이 갈렘인, 자원봉사자 실비아

1988년 140개국에 참가한 세계보건장관 정상회의에서 매년 12월 1일 을 전 지구촌의 차원에서 에이즈퇴치를 위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날로 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이 날은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에이즈퇴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쏟고 있는 가 그리고 아들간의 결속이 어떠한 가를 보여주는 날로 지켜져 왔다.

특히 2000년 세계에이즈의 날 슬로건 '에이즈예방-남자가 변화시킬 수 있다.' (Men make a difference)에 이어 올해에는 '우리 모두 에이즈 예방에 대한 관심을...' (I care... Do you?)라는 슬로건으로 2년 연속으로 에이즈예방에 있어 특히 남성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